



『2023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대비』

전공역사 모의고사 및 모범답안(2)

| 김태규 · 구영모 교수 | 박문각임용고시학원



04. 밑줄 친 ① 무렵 신라가 군사적 방비를 위해 실시한 내용을 1가지 쓰고, 팔호 안의 ④에 들어갈 칭호를 쓰시오. [2점]

(가) 흥요현(興遼縣). 본래 한의 평곽현(平郭縣) 땅인데, 발해가 고쳐서 장녕현(長寧縣)으로 하였다. 당(唐) 원화(元和) 연간에 ① 발해왕 대인수(大仁秀)가 남쪽으로 신라(新羅)와 국경을 정하고 북쪽으로 여러 부(部)를 공략하여 군읍(郡邑)을 설치할 때 마침내 지금의 이름을 정하였다. 호 수는 1,000이다.

– 『요사(遼史)』『지리지(地理志)』

(나) 처음에 그 나라의 王이 자주 학생들을 京師의 太學에 보내어 古今의 제도를 배우고 익혀 가더니, 이때에 이르러 드디어 '(④)' 이가 되었다. 국토는 5京 · 15府 · 62州이다.

– 『신당서(新唐書)』『북적열전(北狄列傳)』

번호	해설
04	④에 대해 패강에 300리 장성을 건축하였다. ④은 '해동성국'이다.

자료탐구

[발해의 중흥]

한국고대사 1권 256-257쪽

선왕은 내분기에 위축된 발해의 국력을 부흥시키겠다는 의도에서 '건흥(建興)'을 연호로 사용했다. 그는 먼저 북쪽으로 흥개호 일대의 말갈 부족을 정복했다. 월희, 우루, 흑수 등 말갈이 발해의 내분을 틈타 독자적으로 교섭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월희 지역에 회원부(懷遠府)와 안원부(安遠府)를 설치했다. 멀리 떨어진 흑수 지역까지 부를 설치하지는 못했지만 흑수 말갈은 발해의 통제 하에 놓여 더 이상 당과 교섭하지 못했다.

신라는 735년 패강 이남의 영유권을 당으로부터 인정받았지만, 이 지역을 적극적으로 경영하기 시작한 것은 782년 ④을 설치한 이후였다. 그런데 선왕이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자, 신라는 826년 1만 명을 동원해 패강에 300리나 되는 장성을 쌓았다.

이로써 발해 전성기의 영역을 나타내는 ④도 마련되었다.

['해동성국'의 칭호]

2015 역사2(미래엔) 65쪽

발해는 문왕 사후 내분이 발생하여 혼란에 빠졌으나, 선왕이 즉위하면서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었다. 선왕은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하고 요동으로 진출하였으며, 남쪽으로는 대동강과 원산만을 경계로 신라와 국경을 맞대는 등 최대의 영토를 확보하였다. 이후 당은 '바다 동쪽의 융성한 나라'라는 뜻에서 발해를 '해동성국'이라 칭송하였다.

[발해의 중흥]

다시찾는 우리역사 154쪽

발해가 다시 중흥한 것은 9세기 중엽에서 10세기 초에 이르는 제 10 대 선왕(宣王, 818~830)에서 제 14 대 대위연(大璽璽, 894~906)에 이르는 기간이다. 이때 영토가 고구려보다 더 넓어져 5경(京) 15부(府) 62주(州)의 지방제도가 마련되었다. 발해가 중국으로부터 '해동성국(海東盛國)'으로 불린 것이 이때이다. 약 10명의 발해인이 당나라에 가서 빈공과(賓貢科)라는 과거에 급제한 것이 이 시기인데, 58명을 배출한 신라인에 비하면 작지만 그래도 당나라에 이름을 떨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9세기 이후로 발해는 당과 신라와의 관계가 호전되어 당과는 서경압록부를 통해 98차례나 사선을 보내 교류했으며, 산동성 등주(登州)에는 발해 사선을 접대하는 ④이 설치되기도 했다. 신라는 남경남해부를 통해 뱃길로 왕래했는데, 신라가 적극적으로 사선을 보내 친선을 도모했다. 신라는 한편으로는 발해의 강성함에 두려움을 가지고 친선을 도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방 패강진 지역에 300리 장성(長城)을 축조하여(826) 대비하고 산동 지방에도 적극 진출하여 ④을 형성하기도 했다.

05.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상제(蕩帝)와 안제(安帝) 연간에 고구려왕 ①궁(宮)이 자주 요동(遼東)을 침입하였으므로, 다시 현토군(玄菟郡)에 속하게 하였다. 요동태수(遼東太守) 채풍(蔡風)과 현토태수 요 광(姚光)은 ①궁(宮)이 두 군(郡)의 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군대를 일으켜 토벌하였다. ①궁(宮)이 거짓으로 강화하기를 청하자, 두 군은 진격하지 않았다. 그 틈을 이용하여 ①궁(宮)은 몰래 군대를 파견하여 현토군을 공격해 후성(候城)을 불사르고, 요수(遼隧)에 침입하여 관리와 백성들을 죽였다. 그 뒤 ①궁(宮)이 다시 요동을 침범하자, 채풍이 가벼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추격하였다가 패하여 죽었다. ①궁(宮)이 죽고 그 아들 백고(伯固)가 왕이 되었다.

– 『삼국지(三國志)』

(나) 경초(景初) 2년, 태위(太尉) 사마선왕(司馬宣王)이 군대를 거느리고 공손연(公孫淵)을 토벌하니, 위궁(位宮)이 주부(主簿)와 대가(大加)를 파견하여 군사 수천 명을 거느리고 사마선왕(司馬宣王)의 군대를 도왔다. 정시(正始) 3년에 위궁이 (④)을 노략질하였다. 당시 5년에는 ④유주자사(幽州刺史) 관구검(毌丘儉)에게 격파되었다.

– 『삼국지(三國志)』

(다) 위궁(位宮)의 현손은 을불리(乙弗利)이고, 리(利)의 아들은 쇠(釗)인데, 열제(烈帝) 때에 모용씨(慕容氏)와 서로 싸움을 벌였다. 건국(建國) 4년, ④모용원진(慕容元真)이 군사를 거느리고 그들을 공격하였다. 남쪽 길로 침입하여 목저(木底)에서 전투를 벌여 쇠(釗)의 군대를 대파시키고 승승장구하여 환도(丸都)까지 침입하니 쇠(釗)는 혼자서 도망쳤다. 원진(元真)이 쇠(釗)의 아버지 묘를 파헤쳐서 시체를 싣고, 아울러 그의 어머니와 부인 그리고 진귀한 보화와 남녀 5만(五萬)여 명을 약탈하고, 그의 궁실을 불살라 환도성(丸都城)을 파괴한 뒤 귀환하였다.

– 『위서(魏書)』

<작성 방법>

- 밑줄 친 ①의 재위 무렵 확립된 왕위 계승 원칙을 쓸 것.
- 팔호 안의 ④에 들어갈 지역을 쓸 것.
- 밑줄 친 ④이 끼친 영향을 1가지 쓸 것.
- 밑줄 친 ④의 발단이 된 사건을 1가지 쓸 것.

번호	해설
05	www.gosipden.com ④은 계루부 고씨 왕위 승계 독점이다. ④은 서안평, ④은 동예가 고구려의 지배권에서 이탈하였다. ④은 모용인 휘하 동수가 고구려에 투항한 것을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자료탐구

[태조왕 시기 체제 정비]

한국사통론 75쪽

고구려가 정복사업을 보다 활발히 하고 국가체제를 정비하여 고대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A.D. 1세기 후엽인 태조왕(53~146) 때였다. 태조왕은 지금까지 중국과 충돌하면서 축적된 국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영토확장을 꾀하였다. 우선 태조왕 4년(56)에는 ④를 복속시켜 함흥지방을 확보하였고, 2세기에 들어서는 요동진출을 도모하였다. 이리하여 왕 53년(105)에는 요동을 공격하여 여섯 현을 탈취하였고, 태조왕 69년(121)에는 현도군과 요동군을 공격하여 요동태수 채풍(蔡諷)을 죽이고 2,000여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으며, 이해 말부터 이듬해에 걸쳐 왕이 스스로 1만 여기(騎)를 거느리고 현도성을 포위 공격하였으나 부여군의 방해로 실패하였다. 이러한 고구려의 요동 진출은 그 후 차대왕(146~165) · 신대왕(165~179) 때에도 계속되었으며 신대왕 8년(172)에는 한의 대군이 쳐들어오자 국상(國相) 명립답부(明臨答夫)가 굳게 성을 지키다가 퇴각하는 적군을 좌원(坐原)에서 섬멸하였다.

태조왕대에는 이와 같은 대외적 발전과 함께 대내적으로 국가체제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때 계루부 고씨(高氏)의 왕위계승권이 확립되어 왕권이 강화되고 중앙집권적인 관료체제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태조왕대가 고구려의 대내외적 발전의 일대 전환기였음은 그의 칭호가 시조격인 태조왕(太祖王) 또는 국조왕(國祖王)이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요동진출 시도]

다시찾는 우리역사 102쪽

고구려의 요동진출은 4세기 중엽 고국원왕(故國原王, 331~371) 때에도 좌절되었다. 전연(前燕)의 모용황(慕容暐)이 고구려에 침입하여(342) 궁궐이 불타고 미천왕의 무덤이 도굴당하고 왕의 어머니와 남녀 5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수난을 당했다. 설상가상으로 고국원왕 41년(371)에는 남쪽의 백제 ④이 쳐들어와 평양성이 함락당하고 고국원왕이 전사하는 비극이 생겼다.

침체에 빠진 고구려를 다시 중흥시킨 것은 4세기 후반기의 소수림왕(小獸林王, 371~384) 이었다. 이때 대외팽창보다 북조(北朝)와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내정을 정비하는 데 힘썼다. 재위 2년(372)에 불교(佛教)를 수용하고 유교교육기관으로 태학(太學)을 설립하고 종국식 율령(律令)을 반포하여(373) 통치조직을 정비했다.

빈칸

④패강진, ④5경 15부 62주, ④발해관(勃海館) ④신라방(新羅坊), ④옥저, ④근초 고왕(近肖古王)

<다음호에 계속 ...>